

# V. 출가 교역자 세대별 재훈련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 개발

이지연(조치원교당, 수위단회 전문위원)

1. 문제의 提起	41
2. 세대별 출가교역자 재훈련의 필요성	42
3. 훈련의 변화	44
가. 교단 초기의 훈련(元年~22년)	44
나. 교무 강습기(22년~54년)	45
다. 반백년 후기(55년~64년)	45
라. 원기 64년 이후~81년	46
4. 세대별 출가교역자 재훈련의 방향	48
가. 교역자 의식구조의 형태에 따른 훈련	48
나. 단계별 훈련시급과 프로그램 개발	52
5. 마무리	56

## 1. 문제의 提起

원불교에서 세대별 재훈련의 의의는 급변하는 상황들의 시대를 맞이하여 조직적인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첫째 선진들이 후진들의 문화를 그리고 후진 세대들이 선진 세대의 문화를 경험하고 관찰해 보는 것으로써 교단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출가교역자들의 意識構

造면에서 질서 있는 조화로 서로 이해하고 인증할 줄 아는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인간形이 나와질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일원상 진리의 종지 아래 신앙과 수행을 통해 사회 정화와 자기 인격 완성을 종교의 목적으로 하고 독특한 훈련의 양식을 통해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을 찾아볼 때 중요한 적공의 계기를 주는 것이 법위사정이다.

오늘 우리가 세대별 재훈련도 초기에 법위의 표준이 매우 엄격했던 문화를 수용해서 진실한 신앙 수행인 전무출신들이 배출되어 자기 수행의 표준을 삼아서 각성을 새롭게 하고 진리를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기풍을 조성해야 겠다고 보여진다.

이상 2가지를 가지고 세대별 출가교역자의 현 정기훈련의 필요성을 살피고 초기교단의 훈련과 이후 반백년 결실성업 완수를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점검해보고, 교역자 자신의 법위향상을 위해서 교리훈련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방법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실천을 조명하고 문제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세대별 출가교역자 재훈련의 필요성

1) 과학 기술의 발달로 산업경계의 발달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고 신체적으로 자유스러워지는 반면 정신적으로 소외감, 긴장, 불안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면서 출가교역자에게도 전통적인 교단 초기의 소박하고 진취적이며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이 집단의 팽창에 따라 바뀌면서 변질되어 변형되는 모습들이 시대에 따라 세대별로 본래의 모습을 잃고 무너져 버리거나 타락하여 교훈을 주고 있으며, 인간적인 대화결핍 세대간의 가치관 갈등 예가 선용 방법 등 교법 정신을 부르짖고 있는 요즈음 심각한 중세들의 모형으로 돌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는 흔적없이 실속있게 하고 일은 상없이 실적있게 나투라”하신 말씀과 “순간마다 공부찬스 경계마다 공부거리”라는 말씀은 일과 공부를 조화롭게 병행하고자 하는 영육쌍전의 필요성이 요구되음을 일게한다.

2) 교육 개혁 위원회는 新教育이 하는 人間像으로서 더불어 사는 인가,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을 제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단은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보다 평화로우며 인간다운 교단을 우리는 절실하게 바라고 있고, 서로 신뢰하며 존경하는 교단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융통하는 교단, 용서와 사랑이 넘치고 교단을, 원하면서도 우리가 갈수록 더욱 불안한 느낌을 갖고 친애의 도가 입가에 만 맴돌기 시작한다면 오늘날의 이 교단에 스스로 문제를 놓고 있고, 교단의 불신을 만들고 서로의 삭막한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시대적으로도 물질 팽창주의로 곳곳에서 정신을 현란시키고 도덕성을 잃어가는 이처럼 불확실한 불안한 시대에 사는 오늘날의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갈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물질이 인간성보다, 인간의 존엄한 정신보다 우위에 있을 때 점점 우리는 진실로부터, 진정한 우정으로부터 친애로부터 멀어져 소외감과 허탈감 속에서 소중한 삶을 헛되이 보내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신앙하나만을 중심하여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데 원불교에서는 신앙과 수행을 동시에 하도록 하고 마음공부를 대중 잡을 수 있는 측정기인 법위의 단계를 주어 스스로 점검하고 일원상의 수행을 하게 했으니 진리의 위력을 얻고, 진리의 체성에 합일하여 부처가 되는 이정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불확실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도리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혼란한 자아 개념을 지난 사람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쓸모 없으며,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고, 외골수적인 느낌에 머물거나, 주위 사람까지 피곤하게 하고, 교단에 뜨거운 일을 끼치게 되고, 스스로 독심이 생겨 주위에 아픔을 남기게 되지만, 건전한 자아 개념과 건강한 인격 성장과 함께 인격형성을 해가는 사람은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사회정화와 자기 인격 완성에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까지의 훈련의 성향이 (반복, 실천)하는 것이 훈련의 자리매김 이었다면 오늘날의 훈련은 교육학에 인접학문에 바탕해서 정기훈련의 기

초를 세워가야 하며 확실히 자아개념을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가 될것이기에 끊임 없는 재훈련으로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서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여 4가지 인간像으로 접근해 가는데 노력하고 경전에 바탕하여 의의를 살려나가는 일이다.

### 3. 훈련의 변화

#### 가. 교단 초기의 훈련(元年~22년)

1) 원불교 훈련의 시원은 원기 원년 9인 선진으로 짜여진 수위단을 통해 월례 법회때로 파악되고 소태산은 성계명시독으로 3순일 법회때 신성의 진퇴 실행 여부를 대조케 했다.

##### 2) 원기2년 8월 저축조합을 통한 새생활운동

원기3년 방언공사와 기질단련 구간도실의 주경야독, 법인성사통한 무아봉공의 정신적 기도학립을 했으며

원기4년 봉래신 입신수양 교단창립의 인연 결속등 회상 공개를 위한 준비작업이 교화훈련과 병행되어왔다.

##### 3) 그후 본격적인 정기 훈련

원기10년 3월 훈련법의 제정 발표에 따라 이훈련법에 바탕했음을 알수 있다.

원기10년도 5월 6일에 결제한 하선과 11월에 결제한 동선이었다. 최초의 하선은 정산종사의 지도 아래 남녀 10여명이 6월 6일부터 8월6일까지 3개월간 입선하였고 동선은 이춘풍의 지도아래 남녀 20여명이 입선하였던 것으로 불법연구회 창건사에 기록하고 있다.

원기 10년~22년까지 3개월씩 계속되었고 교단 초기의 동·하선기는 가장 소박했지만 원형적으로 실제화 되었고 정기훈련은 인재양성의 교단적 필요와 전무출신 자들의 집단 공공 생활등으로 가능케 했으며 교세 확장 지방 교화 활동을 위한 분산으로 그 형태의 변동을 가져올수 있는 중요한 틀이었다고 본다.

## 나. 교무 강습기(22년 ~ 54년)

전무출신의 양적중기, 지방배치들의 원인이 제공되자 교역자 양성위한 동·하선기와는 별도로 정기훈련은 강습의 형식으로 년1회씩 개설되기 시작했다.

교무 강습회는 초기에 교역자들을 위한 정기 훈련의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점차 지방교화의 지원을 위한 재교육의 성격이 가미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회상 초기의 동·하선적 특징은 변질되어지기 시작한 것이며 해방후 유일학림의 개설에 따라 교역자 양성을 위한 제도는 추후 원광대학으로 발전되면서 공동 교육기관의 교육제도로 전환되어 졌다. 따라서 동·하선 형태의 훈련은 소멸되어졌다고 볼수 있다.

◎ 정기훈련의 변화는 교단의 발전 변화로 인해 근본의의를 수용하면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변화가 되었는지 형태와 피동적인 모습으로 전환되어졌는지 알수 없다.

## 다. 반백년 후기(55년 ~ 64년)

이때는 교단사의 교세가 급성장 기이다.

특히 교역자의 강습회는 연조, 근무기관별 분활되었고 지방 교화의 장기간 공백을 막기 위하여 훈련기간도 대폭 축소된다. 교단은 정기훈련의 필연적인 것으로 변화시켰지만 기간의 축소는 정기훈련을 한다는 유지 정도로 한계를 가져다준다. 거기에 교정원에서는 전문 훈련원의 발족과 훈련부 신설 등 훈련에 관심을 갖고 표출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훈련에 대한 중요성과 적극적 의지의 결실이라고 외지의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어지고 만다.

이렇게 훈련 형태 변화는 상당한 환경적인 조건을 타고 외형적인 것들에 내실을 빼앗기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왔다.

어쩌면 원불교의 정기훈련에 대한 강화없이 생활화, 시대화, 대중화에 급급해져서 도덕규범의 운동에 떨어지게 되는 경향을 놓고 있다고 할수 있다.

신앙에 대한 끈질긴 움직임과 함께 수행의 깊은 맛을 잊어가고 교단의 팽창주의에 끌려 여유를 가지고 자리를 찾아 가는 것보다 이끌려 시간을 채우라는 인사

와 여건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조건의 교당에서 교도가난 경제가난의 곳에서 기다리고 참는것도 몇일이지 수행이 부족하고 신심이 부족하고 공심이 부족하다는 말듣기 싫어 밖을 향해 보고 있으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는가.

여기서 1주일로 어쩔수 없이 흘러가게 했던 원인들을 교단에서는 빨리 분석하고 내실을 힘있게 하고 건강한 집단을 구성해 가기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치우쳐지고 있는 훈련을 강화시키고 법제화 시키는 한편 동하선의 훈련을 살려야 할때가 왔음을 주목 할만 하다.

## 라. 원기 64년 이후~81년

### 1) 원기64년 전까지의 교화 성장 배경

▫ 신선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새불교를 지향하면서 적극적인 교화 대중화시도 생활종교로 변화를 가져오면서

▫ 유익하다는 인상을 심었다.

공부를 가르키는 곳 좋은 말씀을 들을수 있는곳으로 성직자는 지식이 있는 자로 평가 받았다.

▫ 정감이 가는 곳이라는 인상을 심었다.

교당은 깨끗하던 지역 정리가 잘된곳이며

여자 교무의상은 한국의 여인상으로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 자비 인정교화도 가능했다.

### 2) 180년(원기65년)이후의 교역자 활동과 의지의 둔화현상

#### ㄱ) 배경의 원인

◦ 학력이 전반적으로 신장되기 시작했다.

◦ 지식 전달의 설교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문화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당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 지극히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되기 시작하면서 법회출석 높이기에 실패한다.

◦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대응의 대비가 부족해졌다.

결국 교당에서 한 지역사회를 맞고 있으면서 출것이 없었던 시대에 맞춰 교단적으로는 사업권장의 시대로 탄생100주년 행사가 치뤄지면서 신앙운동이 없이 무리한 사업만 추진되게 되었고 법위마저 공부와 사업이 균등한 법위향상으로 가지 못하고 즉 법으로 교화가 되지 못하였고 대중의 고학력 현상에 따른 심리의 이중성이 가로막게 된다.

사람의 성격 형태 구분해보면 자유방임을 추구하는 사람과 타율 지향의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 성장 비결을 보면 적극적 교화를 시도해서 철저한 관리의 관심을 사게하여 생계수단의 직접적인 대상으로까지 파고 들게되었다.

불교는 무간섭이다. 그래서 편안하다. 그것을 추구한다. 1년에 한두번 절에 갔다와도 나는 불교인이 되는 것이다. 원불교는 관심은 부족하고 간섭은 많고 부담스럽다. 사업성적 법위사정 법회출석이 모두가 교역자와 교도가 부담스럽다.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먼저 출가교역자의 재훈련에서 해결해 주고 문제해결은 교단정책에서 받아서 다시 투자해줘야 한다. 현상은 너무 고달프고 외롭다.

이젠 개인주의가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교단 교역자들의 문제에까지 오고 있다. 나 있은 곳에서 년수 채우고 또 포기하는가 하면 불철주야 내교당 하나 반듯하게 하면 되지하고 지극한 작은 개인주의에 떨어지고 있다. 곳 교역자의 사기저하는 교단의 위기이며 그 위기가 정신적인 근본에 힘이 없는 가장 슬픈 사연이기도 하다.

ㄴ) 총회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보고자 한다.

몇달 전부터 이 총회를 준비하느라 외출금지하면서 열심히 지쳤다고 말하는 교역자가 있었다.

사실 총회는 진참회의 사실적인 충고와 문제제기가 들어나서 서로 부동켜 안고 울고 걱정하는 모습이 될때 한결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본다.

그냥 조용히 그 위기만을 넘기면 된다는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다보면 발전이 없을 뿐더러 자각증상이 없어 그 자리에 안주, 안거해 버리는 나태심으로 흘러가고 만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게 해줘야 할것이다. 결석자도 많아지고 총부에 갔어도 회의장소와는 무관하게 밖에서 걸도는 사람. 심지어 의자에 기대어

잠자는 사람 여러 가지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다. 살아 있는 눈빛으로 뻥글뻥글 돌아가게 할수는 없을까.

신앙수행에 미쳐서 자기를 진정찾고 선의 진미를 맛보며 어떠한 어려움도 의연한 모습으로 보여줄수 있고 스스로 찾을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그럼 세대별 출가교역자 재훈련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말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로 하자.

## 4. 세대별 출가교역자 재훈련의 방향

### 가. 교역자 의식구조의 형태에 따른 훈련

어느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있다.

그 집단은 의식속에 생활속에서 그들만의 흐름을 만들어간다. 집단의 성격이 나타나고 집단이 지향해 가는 방향이 좌우된다. 우리 교단은 한국사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다준 강한 힘을 보여주었다. 또 종교사에도 그렇다.

예를 들면 물질에 얹매여 사는 인류에게 정신개벽을 일깨웠고 부분신앙을 전체 신앙 미신신앙을 사실신앙까지하게 하여 생활에서 인과를 알게했고 전체 신앙 생활을 하게 했다.

교단도 몇명의 초기 제자들로 된 구성원에서 교단의 발전에까라 기존구성원과 새구성원들로 교단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커다란 흐름속에 들어온 잔잔한 흐름속에는 계승 발전 시켜야할 유산과 흘려보내야할 유산이 있다.

먼저 집단의 초창 형성에서 생긴 의식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소박하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그런데 팽창되면서 무너지고 변질되어 진다.

그중 첫째층은 대종사의 직접 교육과 교화 신앙 수행을 했던 층이 생겼고 둘째 대종사의 교육과 교화 신앙 수행을 받았던 층의 사람에게 교육을 받은 층과 세째 현대교육을 현대식의 학교에서 받은 층이다.

세째층에서 가장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단의 초창을 교리를 통해 배우면서도 교단의 현실과 사회의 문제들에 부딪쳐 힘이 빠지고 있다.

첫째와 둘째 층은 이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하고 세째층은 시대의 흐름에 교단을 재조명해 가야한다.

지금 우리는 교단 4대의 경륜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다. 또 교단의 흐름속에 변질되어 갈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제 훈련도 교단초기의 동·하선 정기훈련으로 교육학에 바탕하여 순수하게 여유와 힘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식위주의 생활에서 교리의 정통성에 바탕한 실천의 법·방망이가 정전을 바탕한 마음공부의 모습으로 교단 곳곳에서 찾아주어야 한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모습을 성찰할 수있어야 할 때가 이 시기이다.

### 1) 교단 초기의 근본정신

우리 교단은 근검절약 이소성대에 바탕한 종단이다. 종두리 쌀(보은미)과 공통 출역의 저축조합으로 시작한 것이며 옛장사와 소작으로 총부건설의 초창을 지켰다. 예전에 총부에서는 한번 사용한 봉투를 뒤집어 다시 사용하는 부서가 늘고 있다고 들었다.

이것은 모두 교단 초창기의 어려움과 가난한 시절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 하므로서 교단이 팽창되었고 경제가 풍성해져도 거만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마음 자세를 지켜와주었다.

이젠 봉투를 뒤집어 쓸 시간에 시간이 돈이다 하여 쓸데없는 공상을 해버리게 하고 있다. 옛장사 아카시아 잎을 먹으며 살았던 선진들의 역사는 이제 옛이야기 속의 한 줄거리로 노래부르게 되었다. 자칫 겸손을 잊고 옛날을 잊을 수 있는 세대 대종경 초안을 연필글씨 위에 잉크로 다시 쓰신 대종사의 정신을 우리 선진들은 보석처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진정 되살려야 할것 즉 가치관 정립에서 원불교 초기의 정신 생활은 그대로 이어져生生약동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총부에서 오는 공문들 종이가 좋은 것보면 아깝고 봉투 뒤집어 이용하면서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도 계속 뒤집어

쓰고 보내고 있지만 경제적인 사정에 앞서 교단 초기의 근본정신에 맥을 대고 겸손해야 겠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 2) 총부를 찾고 교당을 찾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먼저 분위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총부 곳곳에 정돈된 모습. 교역자들의 얼굴에 나타난 맑고 편안한 마음속에서 탁한 기운을 지우기 위해 연세가 적든 많든 사기 를 지우기 위해 찾아든다.

교당교무를 보고 무어라 하는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요. 이미 하늘에서 성 선식이 이루어진 완성된 인격이라 말한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때 교단과 교당의 분위기는 말할 것이 없다.

선진들은 이불을 만들수가 없어서 잘때는 겨우 하나로 빨만 덮고 동지들과 지냈다한다. 애경사가 있으면 봉투의 애경사가 아니라 진실로 같이 울고 웃는 동지들이었다고 한다.

교단의 직책이 맡겨질때면 몇번 사양하고 나서야 사명감으로 맡았으며 중요직 책에 자기 동지를 추천하여 그 자리에 앉게 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일을 보좌한 아름다운 풍토였다.

기구가 좋아지고 구성원이 많아진 오늘의 교단에서 사기가 떨어지고 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하늘마음을 도와시 한다면 처음 교당이나 총부를 처음오는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갈까. 어쩌면 이것도 초기교단의 예쁜 마음으로 곱게 가꾸어야 우리들의 과제이다.

요사이에 교역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되어 스승님들의 양어깨가 늘어지고 늘어지다 못해 아픈 병 증세가 악화되어 아픈지조차 모르게 되는 불치의 병까지 가게하고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살다가 그것마저 포기하고 아픈지조차 모르고 살다보면 이젠 자각 증세마저 없다.

소태산 대종사는 교화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교단품 24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총회의 분위기에 재미가 없다고 말한다. 무던한 인간형들이 많기 때문이다. 10 가지 일을 했을때 그 가운데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분명있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잘한 일이 많아도 한가지 잘못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는 9가지 잘할 생각보다 그 한가지 실수를 않기위해 산다. 이런 사고가 우리 교역자들의 의식속에도 자리 잡고 있다. 「지키고만 있어도 큰일」이라는 사고 이것도 무엇인가.

그 사람이 일생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보지않고 잘못한 것만을 따지게 되면 아무 한 일도 없이 살아오면서 무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내 의견을 정확히 내세우지 못하고 대중의 의견에 슬며시 따라가는 것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독특한 사람이 되기 싫어 점잖빼려고 앓아 있다. 칭찬 한마디하고 현실과 타협해 보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집단이 계속 형성될때 소극적인 집단과 침체 퇴보 도태 될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생각 한생각에 단순한 모습으로 사고하는 것이 돌출되게 된다.

「나」 오직 나만을 위한 표준과 판단이 내릴때 내가 하고 있는 신심이 공부법이 지도법이 유일하다고 보면 지도인이 없게되고 교단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고 잘못해주는 사람은 나쁜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교단은 많은 류의 사람들을 각 분야별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해 보고자하는 인간 이해를 9가지 성격의 유형이외에도 많다고 보는데 분류하여 제시하고 확실하게 자신을 알고 부족한 면을 채워서 조화로운 인간으로 나갈때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성숙한 대인관계 유지에 수분의 역할을 하는 이해가 있게 될것이다.

3) 서로의 성격을 알고 이해하는데는 공동체 생활이 도움이 된다.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나오면서 우리에게도 젖어들어오고 있음을 본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살펴볼때 자아개념과 자기개방으로 자기 수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는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친한 동지 스승을 통하여 감정받을때 따라서 문답을 통해 해오를 얻게 될때 바로 서로의 성격을 알고 이해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성숙에 도움이 되고 집단적으로는 이해의 폭을 넓혀보다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4)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의식 개선해야 된다.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한다. 성직자라는 우월병(優越病)에서 배가 고프면서 이를 이쑤시게로 쑤시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배고르다고 말할수 있는 사실 그대로의 삶으로 살고 세속화 세속인으로 사회를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혼란으로 뒤틀여 되어 가치관을 상실하고 마음의 병을 얻는 쪽보다 질서있게 조화된 그 모습을 인정하고 이루어 갈때 또 고집스럽게 하나라고만 우기지 말고 배타적인 마음 가짐이 되지 말고 삼독 오욕을 놓으면서도 내가 아니면 안된다고 그 일을 할수 없다고 하는 명예욕을 저멀리 던져지게 될때 그 사람은 성숙한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이라 볼수 있다. 아무리 수십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해낼수 있는 참 능력이 없을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작은 자리 어려운 자리라도 자신이 맡은 하나의 분야에서 활발히 해낼수 있는 것만이 찬란히 빛나고 선진의 업적에 나를 변호하고 나를 우월감에서 빼내어 함께 할수 있는 자리라 되리라 본다.

## 나. 단계별 훈련시급과 프로그램 개발

1) 원기62년 가을 중앙훈련원 준공되면서 훈련하는 교단으로 의지집약 교단적인 여건을 볼때 어려운 과정임에도 종법사님의 원력과 재가출가의 합력으로 이루어진 시설에서 출가재가의 교도훈련 국민훈련 인류훈련을 목적으로 제시되었지만 훈련시설 훈련체제의 정비등 만선의 꿈을 안고 출범한 63년의 추계교역자 훈련은 거의 빈배로 귀향하게 된다.

훈련생들은 동 11월의 교정위원회에서 훈련과정 재편성 결의를 하게 되었다. 결국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에 연원을 둘으로써 삼학공부를 뜻하고 삼학공부는 일원상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는, 일을 쉬지않고 적공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과정으로 11개과목이 있고 3학훈련이 원불교 교도이 훈련내용이 되었고 초입자(보통급)나 원숙한분(항마위이상이나) 동일한 수련을 쌓도록 되어있다.

그리하여 삼학수행이 11개과목의 기초과목이 되었다. 원기10년대에 매년 음력5월 6일~8월 6일과 동 11월 6일~익년 2월 6일에는 두차례에 걸쳐 정기훈련을 동선 하선으로 실시했다. 훈련 과정은 염불.좌선.경전 강연.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

기. 주의 조행 수시설교등 11개과목이었다. 참가자는 출가재가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을 따라 훈련기간이 단축되고 재가 출가의 구분이 있게 되었다. 원기 10년대와 60년대의 반세기 동안의 역사적 사회적 반응을 한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커다란 충격을 준일이 없었다. 훈련과정은 변수 요인은 너무나도 많았다.

첫째 토지에 메달리던 생계 수단, 생활영역, 가치관념이 산업화 도시화의 현대 조류를 타고 단색에서 복색으로 일지점에서 다지점으로 불변가치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가정에만 파묻혀 있던 자녀들이 뿔뿔이 부모들과 어른들의 솔하에서 멀어져 갔다.

둘째 시간의 단축이라고 예기치 않는 현상이 엄습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먼 고장의 소식을 일일 시시로 배급받는다(라디오, TV). 새로운 상품들이 날마다 시장과 점포를 진열한다. 도시와 농촌의 구별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모두 대도시병에 걸리게 된다.

세째 가속적인 변화현상이다. 기술은 기술을 놓고 지식은 지식을 놓아 10여년의 지식의 양은 이전 역사의 총화와 같다고 한다. 「역사여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쉬어달라」는 말이 나와졌고 기술의 속성은 그 발전을 멈출수가 없었다.

네째 현대인들은 대량생산 대량보급 대량소비의 대중사회를 흔들어 휩쓸어갔고 대중사회의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이젠 음식까지도 같은 식품을 먹고 같은 기사 를 읽고 같은 생활양식속에서 사고와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경제개발 사회개발의 복지정책을 원하고 균등한 분배 질높은 행복(의식주)을 기대하면서 이미 빈곤 고착, 단색 인내의 미덕만으로 뭉쳐진 전시대의 생활 규범이 아무런 힘이 없어졌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 되었다.

원기 10년대의 3개월 훈련을 차츰 ①기간의 단축 ②출가재가의 구분 ③예비교역자와 교역자의 구분 ④11과목 과정 이외의 보충훈련 ⑤훈련방식의 다양화 ⑥교화 대상의 이해(과학기술의 변화와 현대사회)등 많은 변수요인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63년의 추계 훈련의 여론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10년마다의 다른 토양을 고려치 않고 시대적 사회적 변수요인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을 들수 있겠다.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에 끌려간 것이다. 불지 출발의 3학공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항마위 여래위에 이르기까지 쉬어도 안되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되

는 법이다.

오직 신심, 서원, 공심 등의 덕목과 30여 금지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것은 대상의 변화나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수정과 인내만이 요구되었어야 한다. 3000년전 불교를 보자. 자연 조건이 나빴던 아열대 지방에 물이 귀했다. 사람들은 엄청난 자연조건은 수정하기보다 자기 수정을 해냈다. 체념의 철학을 터득했고 열반적정의 정관을 최고 이념으로 하는 인도인의 이념이 중국 한반도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80여년전 소태산 대종사는 무엇을 제기했던가 근검, 저축, 공동출역, 방언공사 혈인기도 등 심전개발과 사회개발을 아울러 시행했다.

일원 즉 사은은 인간과 밀착된 생활속의 종교로 현대인속에 심어 주었다.

## 2) 출가교역자 재훈련의 프로그램 시급

- 인도에서 인도인들의 체념의 철학과 대상의 수정을 놓아둔채 자기내부의 심정적인 변화를 얻고자하는 만족하고자하는 것을 생활 태도를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되겠다.
- 중국인들의 서방정토 왕생극락의 생활관도 동경하지 말자. 은연중에 설교나 교리해석에서 묻어나온다.

### ◆보다 원불교 출가교역자들의 재훈련의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 경제적인 자립을 키우기 위해 교당 유지 발전에 심혈을 솟아 심신간 지치고 병에 시달리고 교화가 안될때는 사업이 사기가 떨어져 큰 죄인이 된양 의기소침하게 하지말고 또 사실적인 과학의 증명만이 최우선으로 놓지말고 신앙의 훈련이 살아나야 한다. 이것은 불공법이다. 불공법에는 자기 불공 (내절 부처를 잘 섬길때 내가 힘을 갖추고 있을때 다른 사람도 위해준다 하셨다.)과 사회 개발의 불공이 있다. 함께 병행시키는 법이다.

둘째 : 출가교역자 재훈련은 현장소식을 충분히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수위단회사무처에서 출가교화단 일지를 넘겨받아서 교화정책의 주지와 여론청취, 현장보고 등으로 새로운 교화 훈련법이 개발되도록 부모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아픔이 있으면 치마폭으로 치유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살펴서 살아날수 있는 교역자 살맛나는 교역자가 될때 교화도 거기에 있다고 본다.

원기81년의 총회에서 교정원 17개 역점사업을 4부문에 걸쳐 발표했다. 교화단 교화활성화를 정착시키는데 교화일선에서의 추진이 얼마나 되여질지 의문사항이다. 또 청소년 교화의 심화를 위해 종합계획안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불붙지 않는 이상태에서 해보자 밀어주자 했지만 또 실망시키는 한해가 되버린다면 어찌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행정과 현장이 함께 텁니바퀴처럼 신바람나게 맞물려 가는 방안이 시급하다.

세째 : 전문훈련 요원의 확보와 훈련 단계별의 설정이다. 전문요원은 전체 수요의 일부만 있어도 좋다. 훈련단계의 설정은 교당 교구 중앙 훈련의 구별을 두 되 연관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교당에서 11과목의 생활화, 교구에서 교리훈련, 중앙훈련원에서의 11과목의 체질화의 프로그램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열어주기를 바란다.

네째 : 1차 2차 3차 4차 5차 ~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교화정책, 교육, 자선, 산업, 문화 등 목적 있는 훈련반을 편성하고 인사정책과 행정에도 여기에 대한 기본 교육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뤄졌으면 한다. 그리하여 훈련과 인사행정이 병행되기 를 바란다. 휴양도 마찬가지다.

다섯째 : 현재 전교역자가 200명 300명 훈련하기 위해 한날 한시 집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당 사정에 따라 교화 공백기를 계속하지 않기 위해 날짜를 정하다보면 자기년도에 못하게 될 때가 있다.

여섯째 : 하루빨리 분야별 훈련과 교육이 열려져야 한다.

① 산업별 훈련 프로그램 ② 문화(의식개혁, 생활문화) 훈련 프로그램, ③ 교화 훈련 프로그램(일반, 청년, 학생, 어린이 등 단활동, 순교, 의식 훈련, 교리 연구 등) ④ 자선 봉사활동 봉공 훈련 프로그램 등 교단정책적 훈련을 시도하여 특별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사람이면 훈련과 교육을 받는 기회가 열리기를 바란다. (연수원 제도)

과목을 놓고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화현장 별로 꼭 교육과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뛸 수 있기를 바란다.

## 5. 마무리:

이제 미래사회의 전망을 보자.

- ① 정보 산업사회가 되면서 고기술 고감촉을 요구하고
- ②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가족 중심적인 행복 추구를 생활문화에서 원한다.
- ③ 또 해결하여야 할 심각한 과제는 고독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대가족 제도 주의만의 훈련의 성향만이 아니라 떨어져서 협동하는 자는 불안하게 보는 경향이 남아 있는듯 한데 과감하게 우리의 훈련이 기초 공통 훈련과 분야별, 기능별, 연조별, 특수훈련으로서 대중화 시대로 생활화 되어가는 정보화시대 21세기를 활짝 열어가도록 해야 한다.

### ◎ 교회전략 대책 방안(출가교역자 재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화)

1) 원불교의 주체성? 고도의 정보활용, 높은 정서활동 종교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에는 신선한 이미지를 구축해 가야 한다. 지금은 너무 노후화된 모습이다.

2) 내부변화를 통해 (의식의 변화) 외부교화 된다.

성직권위는 철저한 자기 체험이 아니고는 안된다. 과거에는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통했다.

3) 양적 성장을 지향하고 질적 성장으로 정책에서 몰아주어야 한다. 이것은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것은 활불인이기 때문이다.

4) 신앙 운동 확산을 시키는데 이것은 기도와 불공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도덕 운동과 캠페인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에 모델 공동체 몇군데에서 힘을 타서 전국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 가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특징있게 운영하는 것이 성공하듯.

세대별 출가교역자 재훈련도 기본훈련 철저히 하면서 상시일기 출가교화단(훈련 내용인정) 단계별 시도하되 종합훈련이 되도록 교당과 교구 중앙중도훈련원 특수훈련(교단)을 연합하게 될때 종합적인 인격형성과 교화가 잡히리라 본다.

① 각 부분별 프로그램은 다음 기회에 제공하고자 한다.

◎ 교당의 역할(공익.봉공)

교도들의 (안심처가 되도록 (고독에서 해방)

(휴식처가 되도록 (스트레스에서 해방)

(의미처가 되도록 (가치혼돈에서 해방)

◎ 교역자 역할(마음병 의사가 되어야 한다) - 교육훈련-

\*처방 내리기전 진단부터 철저히 하는 자세

교도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서 스스로 고통에서 탈출 할 수 있도록 상담하자.

◎ 교당 공동체를 낙원 공동체로 -정책분야-

◦ 서 신경영기법→P·P·F (종업원 만족 우선주의)

◦ 교무 만족 우선 정책(사람중심←일중심.정←법)

◦ 교화장-교당교화

새로운 교당 출현의 필요→훈련장 법회

◎ 교화의 자세- 신앙인이 되어야 -의식분야- 확신 긍지

\*인사정책-갖은 인사 -정책분야-◦ 인사의 의미-행사위주~ 위해서

\*자비 인정 교화 복원

\*법회일→법회출석 강요 말자

